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 ①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 ②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기도서 109쪽)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7년 1월 18일 박항영 프란치스코 신부(38세)
- 2004년 1월 23일 김정진 바오로 신부(82세)
- 2009년 1월 23일 홍인수 세례자요한 신부(67세)
- 2019년 1월 19일 장홍선 요셉 신부(81세)

서울주보 알림 신청: <http://cc.catholic.or.kr>

프란치스코 교황 ‘성 요셉의 해’ 선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보편 교회의 수호자 성 요셉 선포 150주년을 맞아 교황 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Patris corde)를 반포하고 교서를 통해 1년을 **성 요셉의 해(2020년 12월 8일~2021년 12월 8일까지)**로 선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드러나진 않지만 매일 인내의 삶을 살고 공동 책임의 씨앗을 뿌리면서 희망을 키우는 ‘평범한 사람들’의 중요성을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기를 겪으면서 명확히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요셉 성인이야말로 주목을 받지 않으면서도 신중하고 드러나지 않게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이자 구원 역사에서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 성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 요셉의 해 전대사는 바티칸뉴스(www.vaticannews.va/ko) 참조>

① 사랑받는 아버지 ② 온유한 아버지 ③ 순종하는 아버지

요셉은 그의 삶을 봉헌하면서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드러냈고, 구원의 역사에서의 그의 역할 덕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성인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껴안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온유한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요셉의 ‘순종’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구했고, 이를 통해 요셉은 아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모범을 가르쳤습니다.

④ 받아들이는 아버지

요셉의 영성적 삶의 길은 ‘설명하는 길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셉 성인이 수동적 인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용기 있고 강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으로 가득한 굳셈이라는 성령의 은사에 힘입어 그는 모순되고 예상할 수 없으며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셉 성인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⑤ 용감하고 창의적인 아버지

요셉은 세상의 다른 모든 가정들처럼, 특히 많은 이주민들이 겪는 가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예수와 마리아의 보호자인 요셉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의 보호자입니다. 성인을 통해 우리는 교회와 가난한 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⑥ 노동하는 아버지

성실한 목수 요셉은 우리에게 노동의 결실로 얻은 빵을 먹는 기쁨과 노동의 존엄 및 가치를 가르칩니다. 노동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하느님의 창조 작업에 협력합니다. 노동의 필요성과 중요성,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뉴노멀(New Normal)’을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떤 젊은이도, 어떤 가정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노동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⑦ 그림자 속의 아버지

예수님에게 요셉은 이 땅에 드리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특별하게 자유로운 방식으로 사랑할 줄 알았으며 자기 자신을 비울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계는 남을 지배하는 폭군이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참된 아버지는 자녀의 삶을 대신 살고자 하는 유혹을 버리고 오히려 자녀의 자유를 존중하는 아버지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더 높은 차원의 부성애로 나아가는 표지입니다.

출처: 바티칸뉴스 | 요약정리: 황중호 베드로 신부(문화홍보국 차장)

교구청일람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달의 하느님의 중 ‘안치롱’

때: 매월 셋째주(화) 1월19일 오전 11시(159회)

곳: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B2 성 정하상 기념경당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양성교육(2021-1차 교육생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성사를 받은 교우

교육기간: 2월3일~6월30일 매주(수) / 20주 과정

교육장소: 가톨릭회관(명동) / 회비: 10만원

신청기한: 1월29일(금)까지

문의(접수):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

(www.catholicpolice.or.kr) 참조

갤러리1898 휴관안내 / 문의: 02)727-2336

휴관일정: 1월13일(수)~2월2일(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 전사자와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 1577-56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